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종광 소설가

한국 드라마는 끝없이 비현실로 치닫고 있다. 옛날엔 '보통사람'의 현실을 담백하게 다룬 드라마도 꽤 있었다. 하지만, 연예인들이 뭔가를 하는 소위 '예능' 프로, 일반인의 삶을 보여 주는 '리얼다큐', 연예인과 일반인이 함께 나오는 '리얼예능'. 실상은 연출이거나 '악마의 편집'이더라고 그 '리얼'을 표방하는 프로들이 특채하는 것에 비례해, 드라마는 '현실'로부터 멀어졌다. 몸이나 영혼이 바뀌는 체인지담, 시간·공간 이동담, 현대판 귀신담, 초능력 히어로담... 이런 노골적인 판타지에 시청자는 익숙해졌다. 저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는 이는 드물다. 그 어떤 판타지도 없으면 시청률이 바닥이다. 드라마는 으레 황당 무제한 것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듯하

‘말이 되는’ 드라마를 보고 싶다

네. 드라마의 만화화라고나 해야 할까. 물론 괴력난신(怪力亂神)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존재나 현상을 이르는 말이 전혀 없는 드라마도 있다. 그렇지만 그 '현실적인' 드라마도 판타지다. 비극적·엽기적 출생의 비밀, 갑작스러운 중병의 발발, 못된 부자와 착한 서민의 운명적인 로맨스, 이중 삼중 사중의 짝짓기 연애, 정의로운 '사'들의 장치... 전통적인 설정만으로는 시청률이 나오지 않으니, 5대 강력범죄가 난무한다. 만약 드라마가 현실의 반영이라면, 한국은 폭력·절도·성범죄·강도·살인이 비일비재하는 '무법천국'이나 다름없다. 재벌은 사업에 힘쓰는커녕 끔찍한 사고나 저지르고, 공권력은 범죄자와 결탁되어 있고, 그래서 범죄는 은폐되지 않고, '사'들도 거의 다 악당이고, 흉과 물에 억울한 희생자가 묻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범죄가 발생 중이다. 정의로운 영웅의 목숨을 건 활약이 없다면 구제 불능이다. 한국이 얼마나 정의롭고 안전한데.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하고 이타적인데. 한국 재벌이 얼마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인데. 드라마 만든 사람들, 애국심이 없

네. 저런 사상이 의심스러운 드라마를 만드나니.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 발각 뒤집히고는 하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아주 가끔 있는 일을 가지고, 만날 일어나는 것처럼 호도하더니 불순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시청자가 있다면, 거짓말인 걸 알고 보는 괴력난신류보다 강력범죄 드라마가 더 충격적인 판타지일 테다. 전혀 판타지 같지 않은 드라마가 판타지일 수도 있다. 훌륭한 의료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낭만닥터 김사부'와 '병원선', 지구대 경찰의 애환을 그린 '라이브', 감옥도 살 만한 곳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어안이 병병한 '슬기로운 감빵 생활'. 근래에 참 보기 드문 '리얼한' 드라마들이다. 하지만 일선 의료인과 지구대 경찰과 교도소 경험자에게 그 드라마들은 얼마나 사실적일까? 어쩌면 예능과 다큐의 '리얼'도 조작된 드라마일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리얼'이 괴력난신 판타지보다 더 어처구니없을 수 있다. 판타지의 극한을 보여 주는 드라마가 최근 방영되고 있다. 국회의사당을 날려 버리고 대통령을 포함 정부 요인 수백 명

을 한꺼번에 죽인 '60일, 지정생존자'. 알다시피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그대로 베꼈다. 아무리 베꼈지만, 한국에서 국회의사당을 날리다니! '미드'에서는 총질이 자유로운 나라여서 그런지 정말 많이 죽는다. '한드'에서는 웬만하면 죽지 않는다. 귀신인지 좀비인지는 미드처럼 죽여도, 감히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는 못했다. 그런데 '60일, 지정생존자'는 갑자기 수백 명을 죽여 버린 것이다. 미드 수준을 한 방에 따라잡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드라마의 '비현실'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미드에서도 베꼈지만, '일드'에서 더 많이 베꼈기 때문이다. 일본 만화, 일본 소설을 대놓고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와 영화도 수두룩하고, 한도에 일본에서 빌려 온 판타지가 가득하다는 건 불편한 진실이다. '비현실'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닐 테다. 시청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아니, 판타지 없는 드라마는 이제 불가능하다. 하지만 왜 꼭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데만 애쓰는 걸까. 판타지라도 은유하고 풍자하고 보듬고 해석이 있고 의미가 있는, '말이 되는' 드라마를 보고 싶다.

社說

‘정계 개편’ 오직 당선 위한 이합집산 안 된다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 의원들이 '대안정치연대'라는 별도 조직을 결성하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의 이합집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계개편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성열 원내대표는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나가기 위한 대안세력들을 묶어 제3지대 신당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당 창당은 9월말까지 출범을 매듭짓고 연말이나 내년 1월에 의원을 확대해 총선 전 최종 확정한다는 3단계 로드맵도 공개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비당권파는 민주평화당 16명 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명으로 이중 7명이 광주·전남 출신이다. 비당권파들은 여기에 옛 국민의당에서 한솔밥을 먹었던 손근주·이용호 의원 등 무소속은 물론 박주선·김동철·주승용 등 바른미래당 내 호남 의원들까지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중도를 표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

국당 의원 일부까지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계 개편은 정치권에서 흔히 있어 왔던 일이고 시대 흐름과 맞아 떨어지면 파괴력도 있었다.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할 정도인 현재 민주평화당의 입지를 고려하면 어떻게든 내년 총선에서 정당을 유지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볼 수도 있다. 3년 전 국민의당으로 호남을 석권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뿔뿔이 흩어진 호남정치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도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창당 당시처럼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 이 때문에 비당권파의 신당 창당이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자리 보전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다. 신당 창당의 성패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신당이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수영대회 경기장 안팎에 보이는 ‘옥에 티’

지구촌 최대 수영 축제인 '2019 광주 FINA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8일째 열전을 펼치며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대회는 수년간 기량을 갈고 닦은 1인자들의 우수 모습뿐만 아니라 슬한 인간 승리의 감격적인 장면을 보여 준다. 한국 여자 수구 대표 팀은 헝가리전과 러시아전에서 94점으로 비록 대패했지만 러시아전에서 역사상 첫 골을 기록하며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대회의 모토인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를 한눈에 보여 주는 이벤트 역시 대회를 빛나게 하고 있다. 어제 저녁에는 1만여 명의 시민과 18명대회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5·18 민주광장에서 조선대 하이다이빙 경기장까지 손에 손을 맞잡고 '평화의 인간띠'를 잇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회를 치르면서 '옥에 티'도 눈에 띈다. 우선 관람객들이 기본적인 '관람 매너'를 지키지 않아 아쉬움을 주

고 있다. 스포링 보드 선수의 경우 다이빙대에서 짧은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경기장을 찾은 학생들이 선수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응원을 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장 밖에서도 눈에 거슬리는 모습들이 눈에 띄기도 한다. 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와 임원들이 묵는 상무지구 호텔 주변에 유흥업소 선전 전단지까지 뿌려지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 필리핀 여성 사진이 실린 전단지를 길거리에서 나눠 주며 호객 행위를 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는 수영선수권 대회를 찾은 손님들 앞에서 광주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광주 도시브랜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구청과 경찰 등은 불법적인 호객 행위나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생각 이전의 자리



정세완 원불교 광주 농성교당 교무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한다고 한다. 아니 하늘이 내일 비를 내려줄 것인지 말을 날씨를 줄 것인지도 모르면서 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교도님의 그 마음 작용이 아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하니 그 교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문한다. 생각 이전의 자리에서 마음을 내세요. 하니 알았다고 돌아갔는데 생각 이전의 자리를 아는지는 모르지만 공부를 계속 리하는 수험생 아들에 대한 짜증의 원인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 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종류는 우리 육신에 쌓인 눈을 문치는 사람이고 다른 종류는 육신에 내린 눈을 녹이는 사람이다. 육신에 쌓인 눈을 문치는 사람의 실체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잣대에 벗어나면 마음 속에 짜증이 가득하여 남을 원망하고 모든 짜증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는 사람이다. 육신에 쌓인 눈을 녹이는 사람은 생각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다.

생각은 눈과 같다. 알면 보이고 모르면 보이지 않는다. 짜증과 분노는 생각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생각의 정체를 정확히 알려면 생각 이전의 자리를 알아야 한다. 생각은 수시로 바뀐다. 점심 뭐 먹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생각하다 그래 짜짜면 먹자. 하고 짜짜면을 먹으면, 짜짜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는 생각과 오늘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이전의 생각들은 사라진다. 이것이 생각의 정체이다. 모든 생각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생각 이전의 자리에서 모든 생각을 일어난다는 것은 생각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했고, 금강경에서는 “약견 제삼상상 즉견여래”(若見諸佛非即見佛如來·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여래를 보리라)고 하였으며, 육조 혜능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다. “생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은 생각과 없음을 동시에 보라는 말이다. 이 이치를 알면 눈이 녹고 이 이치를 모르면 눈은 문쳐지게 되어 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의 잣대를 벗어났을 때 생긴다. 문제를 바로 본다는 것은 나의 잣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잣대가 무너지면 “아하”하는 깨달음이 온다. 생각 이전의 자리를 알게 된다. 생각 이전의 자리에서는 눈은 녹게 되어 있고 상처도 아픔도 녹게 되어 있다. 초기 불경인 순타니파타에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진흙에 때 묻지 않은 연꽃같이,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였다. 왜 사자는 소리에 놀라지 않을까? 소리의 실체를 알기 때문이다. 잣대를 놓으면 나의 실상이 달라진다. 선악의 기준은 나이다. 나에게 이로우면 선이고 나에게 해로우면 악이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잣대를 놓으라는 것이다. 하늘을 나는 연을 보라. 실은 연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연은 실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실은 종교이고 연은 진리이다. 생각 이전의 자리를 깨닫기 위해 오늘도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는 살불살조(殺佛殺祖)의 삶의 수행이 되길 염원한다.

기 고

좌와 우를 넘어서



홍성훈 호남대 무역경제학과 교수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하여 소득 분배 정책을 매우 중요시한다. 오늘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의 소득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미국 부자 360명의 재산이 가난한 국가들 20억 명의 재산과 동일하다고 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루 1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4억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빈부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좌파 정당들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 그렇다면 좌파와 우파 중에서 어느 편이 더 옳은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어느 한 쪽이 옳다고 할 수 없으며 각 정권이 어떠한 성향에 치우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정부가 개인의 경제적 활동에 상당한 간섭을 하더라도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선호한다면 좌파적 성향을 갖는 것이다. 반면에 다소의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가들의 이익 추구를 허용하여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파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즘은 여러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경제 정책들을 살펴보면, 좌파인지 우파인지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가장 좌파적 정권인 북한에서는 자

본주의적인 장마당이 자리를 잡고 있고, 가장 우파적 국가인 미국에서는 의료 혜택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사회주의적 제도, 즉 오바마 케어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여 특정 산업을 육성한 적이 있는데, 이는 그 당시의 강력한 우파 정권이 자유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정부 개입의 경제 성장을 시도하는 좌파적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그리고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전 국민이 동등한 의료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 시장과 사유 재산을 보장하는 자본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이나 미국처럼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진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지 않고 북유럽식 복지 국가라는 독특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 프랑스의 공화당과 사회당, 독일의 기민당과 시민당 등의 정당들은 명목상으로 다른 이념을 추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정책과 사회주의적 정책을 혼재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 다른 예로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전통적인 공산주의에서 출발한 국가들도 민간 기업과 자유 시장을 상당한 수준까지 허용하여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

고, 미국에서는 빈곤층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샌더스는 자신이 민주당 사회주의자이므로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소득 불평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 손이 보이지 않는 진정한 이유는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예상과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극좌 혹은 극우에 빠지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좌파와 우파의 이분법은 2차 대전 후 미국과 소련이 대적하던 냉전 시대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며 한 쪽에 편향되지 않는 개방적이고 균형된 사고를 유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념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좌파 혹은 우파 정책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혼합하여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만일 남과 북이 이와 같은 정책을 동시에 추구한다면 이질적인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無等鼓

전쟁이나 군대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다. 예전에 군대의 수장은 왕이나 귀족이었고, 이들은 당연히 전쟁이 나면 앞장서 싸웠다. 지배층의 병역은 의무를 넘어 리더로서의 필수 덕목이었다. 심지어 삼국사기 '계백열전'에는 신라와의 최후 결전을 앞둔 백제의 계백 장군이 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참수하고 비장하게 전쟁에 임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진위 여부를 떠나 당시 지배층에게 병역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지배층의 병역 의무는 조선시대에 들어 오면서 완전히 망가진다. 지배층인 양반은 병역에서 제외되고, 오로지 일반 백성만이 군역을 담당했다. 임진왜란·병자호란 때 목숨을 바친 군인은 모두 농민을 비롯한 평민이었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로 갈수록 많은 백성들이 도망을 치거나 뇌물로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토록 하는 등 병역 비리가 만연했다. 양인 신분을 포기하고 군역 의무가 없는 노비를 자원하거나 승려가 되기도 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03년 강진 유배

시절, 병역을 발미로 백성을 착취하는 탐관오리와 그 아래 신음하는 백성의 처절한 몸부림을 목격한 뒤에 읊은, '애절양'(哀絶腸)이라는 시(詩)가 있다. 이 시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태어난 지 사흘 된 아기까지 군役に 올라 있어, 이를 면하기 위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로인 소를 빼앗기 백성이 '자식 낳은 죄'라며 분을 못이겨 스스로 남성의 상징을 잘랐다는 비참한 얘기를 담고 있다. 이 같은 불공평한 병역 제도와 비리는 지배층에 대한 백성의 불신과 불만을 키워, 결국 조선이 몰락하는 원인이 됐다. 뒤편 역사의 DNA 탓에서 제외되고, 오로지 일반 백성만이 군역을 담당했다. 임진왜란·병자호란 때 목숨을 바친 군인은 모두 농민을 비롯한 평민이었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로 갈수록 많은 백성들이 도망을 치거나 뇌물로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토록 하는 등 병역 비리가 만연했다. 양인 신분을 포기하고 군역 의무가 없는 노비를 자원하거나 승려가 되기도 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03년 강진 유배

입국 반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체 육 부 220-0633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